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中年女性の 部分假髮 着用實態와
選好도에 관한 研究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 藝術 學 科

헤어 디자인 專 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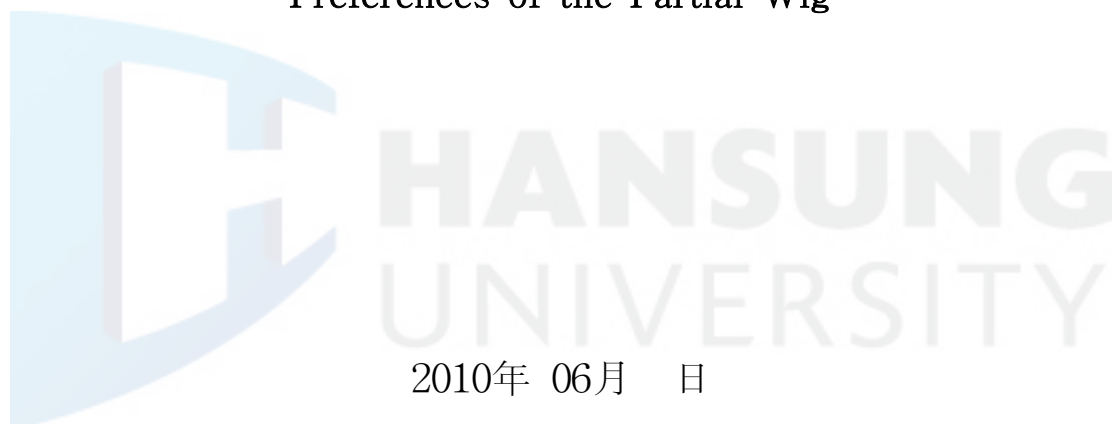
徐 美 映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五赫

中年女性の 部分假髪 着用實態와
選好도에 관한 研究

A Study on Middle-Aged Women's Uses and
Preferences of the Partial Wig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 藝術 學 科

헤어 디자인 專 攻

徐 美 映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五赫

中年女性の 部分假髪 着用實態와
選好度에 관한 研究

A Study on Middle-Aged Women's Uses and
Preferences of the Partial Wig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10年 06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徐美映

徐美映의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06月 日



HANSUNG
UNIVERSITY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가발의 유래	6
제2절 가발의 종류	8
1. 전체 가발 및 부분 가발 (Wig & Toupee)	10
2. 현대의 패션 가발 및 전체 가발	12
3. 현대의 부분 가발	13
4. 부착 방법에 따른 분류	15
제3절 가발 헤어 코디네이션	18
1. 둥근형(Round Face)	19
2. 타원형(Oval Face)	21
3. 사각형(Square Face)	22
4. 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Face)	24
5. 다이아몬드 형(Diamond Face)	25
제4절 중년여성의 헤어스타일	27
1. 중년여성의 개념	27

2. 중년여성의 특성	29
3. 중년여성의 미적관심과 헤어스타일	32
제 3 장 연구방법	36
제1절 연구문제	36
제2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37
제3절 측정도구	37
제4절 자료 분석 및 처리	39
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40
제1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40
제2절 중년여성의 빈모실태	42
1. 중년여성의 빈모실태	42
2. 빈모의 원인	43
3. 탈모 및 빈모 예방과 관리의 효과	44
제3절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사용실태	46
1. 부분 가발 사용 의도 및 이유	46
2. 가발 구입 처	48
3. 부분 가발 사용 실태	49
4. 부분 가발 사용동기	50
5. 부분 가발 사용하지 않은 이유	51
제4절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사용 효과	52

1. 부분 가발 사용 후 만족도	52
2. 부분 가발 사용 후 심리적 안정감	54
3. 부분 가발 사용 후 도움정도	56
4. 부분 가발 사용 후 불만족 이유 및 보완점	58
5. 부분 가발 구입 시 고려사항	59
제5절 중년여성의 부에 대한 선호도	61
 제 5 장 결 론	 6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	65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70
 참고문헌	 73
설문지	79
ABSTRACT	88

【 표 목 차 】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1
[표 4-2]	중년여성의 빈모실태	43
[표 4-3]	빈모의 원인	44
[표 4-4]	빈모 예방 및 관리의 효과	46
[표 4-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빈모의 예방 및 관리 효과차이 ...	46
[표 4-6]	부분 가발 사용의도 및 이유	48
[표 4-7]	가발 구입 시 믿음 가는 곳	49
[표 4-8]	부분 가발 사용 실태	50
[표 4-9]	부분 가발 사용동기	51
[표 4-10]	부분 가발 사용하지 않은 이유	52
[표 4-11]	부분 가발 사용 후 만족도	53
[표 4-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착용 후 만족도 차이 ...	54
[표 4-13]	부분 가발 사용 후 심리적 안정감	55
[표 4-1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착용 후 심리적 안정감 차이 ...	56
[표 4-15]	부분 가발 사용 후 도움정도	57
[표 4-1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착용 후 도움정도 차이 ...	58
[표 4-17]	부분 가발 사용 후 불만족 이유 및 보완점	59
[표 4-19]	중년여성의 부분가발에 대한 선호도	62
[표 4-18]	부분 가발 구입 시 고려사항	61
[표 4-2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선호도 차이	63
[표 4-21]	부분 가발 사용 실태에 따른 선호도 차이	64

【 그림 목 차 】

<그림 1> 남성패션 전체 가발	12
<그림 2> 여성패션 전체 가발	12
<그림 3> 여성 뒷머리 부분 가발	13
<그림 4> 여성 앞머리 부분 가발	13
<그림 5> 여성 탑 부분 가발	14
<그림 6> 남성 탑 부분 가발	14
<그림 7> 찰 탁식 탑 부분가발과 앞부분 가발	15
<그림 8> 양면테이프 형 가발	16
<그림 9> 고정식 가발	17
<그림 10> 미디엄 단발커트 스타일(탑 부분 가발)	20
<그림 11> 쇼트 단발커트 스타일(탑 부분 가발)	22
<그림 12> 미디엄 레이어 커트 스타일(탑 부분 가발)	24
<그림 13> 쇼트커트 스타일 (탑 부분 가발)	25
<그림 14> 미디엄 웨이브 스타일(탑 부분 가발)	2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인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같은 공간에서 자신의 개성을 누구보다 더 표현하고 표출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으며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남들에게 보여 지는 미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아끼며 사랑한다는 의미와도 부합된다.

인류가 탄생한 후부터 인간에게 있어 자신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21세기인 현대 사회에서는 급속적인 산업발전과 함께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한 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충족시키려는 인간의 미적인 감성을 자극 시켰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자극 시키는 것은 그 누구보다 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이며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꾼다. 특히, 단순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며 누구보다 아름답고 돋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삶의 질이 풍요로워 질수록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와 환경적 오염, 영양의 불규칙, 피지 분비의 이상, 성인병, 화학적인 요소, 유전적 요인,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언밸런스 등 많은 요인으로 탈모 고민에 빠지게 된다. 즉,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고 문명이 발달 할수록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 신체의 일부이자 미적 표현수단인 모발이 줄어들어드는 빈모나 탈모를 유발 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남성 형 탈모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 등 여러 가지 병적 요소로까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동양권 문화에서는 대머리는 결코 좋은 모습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두피에 모발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패션이나 유행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대머리나 탈모로 인하여 술이 감소되어도 유행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머리를 탈모로 신체 일부가 결핍된 것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술이 적거나 대머리인 사람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무기력증, 집회나 모임의 참여를 기피하는 대인기피증과 인상장애요인(The Trouble in Facial Expression)으로 심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어 그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¹⁾

하지만 이들은 현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각종 탈모예방 제품들과 탈모 관리실이 늘어나고 가발산업도 날로 번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발 중에서도 맞춤가발의 경우에는(대머리용) 단순히 말 그대로의 “가발” 즉, “가짜머리”가 아니라 자기 머리처럼 늘 착용하는 “제 2의 자신의 머리”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멋 내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닌 정신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이 포함된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을 표출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가발(탈모용)도 미용의 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분야에서의 관심이 극히 미미하거나 소외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²⁾

1) 김기향(2004), 「미용학적 접근의 탈모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5권 제1호p.110

2) 장수만(2006), 「미용학적 접근의 탈모 및 가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또한 학문적인 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생의 주기로 볼 때 중년기는 성인기와 노년기의 사이에 있는 시기로 생물학적인 연령은 대략 40세에서 60세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로 일컬어지는 사춘기가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라면 중년기는 성인기와 노년기의 전환기로 ‘중년의 위기’로도 표현되는 인생의 전환기이다.³⁾

중년여성의 경우 직접적인 변화와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변화에 더욱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젊음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 시기가 중년 여성의 과제이기도 하다.⁴⁾

이렇듯 중년 여성의 신체적 변화 중에는 탈모 및 빈모가 아니라도 호르몬문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빈모 및 탈모가 일어난다. 이는 더 나아가 두피 건강까지도 야기하게 되는데 이는 중년 여성의 고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대인의 외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그 중 특히 헤어스타일의 관심이 많아지자 시중과 홈쇼핑 등에서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외적인 면을 해결 할 수 있는 기능성 부분 가발이 조금씩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발산업의 시너지 효과는 가져 왔을지 모르나 가발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대중화 되지 못한 점 때문에 고객들의 헤어스타일을 커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년 여성이나 머리숱이 적은 고객의 헤어스타일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가발에 관한 이미지와 선호도를 알아보고, 가발 착용 시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조사하고자 하였으

3) 김나영(2006), 「일하는 중년여성의 몸 변형 경험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

4) 상계논문 p.20

며, 머리숱이작아 헤어스타일에 만족을 못 느끼는 현대인 특히 중년 여성을 위해 미용 산업과 가발산업의 조화로운 마케팅으로 부분가발도 어떤 특정 대상인 아닌 필요에 따라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부분가발의 패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탈모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자연스럽고 불편함 없는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그들만의 관리방법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며, 탈모 및 빈모고객에게 만족과 멋을 창출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재 사회 활동이 많아진 중년여성의 미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모발의 빈모 및 탈모로 인한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보완하는 부분가발의 패션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배경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선행연구 논문, 미용관련 서적이나 단행본, 그리고 통계자료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외에 문헌자료 및 정보자료 수집은 주로 국회도서관 및 관련된 기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패션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 가발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터넷 기사나 미용잡지 등 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부분가발의 착용실태와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용

산업과 가발산업의 기술적인 측면을 더하여 부분가발의 패션화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서 가발의 유래 및 가발에 대한 종류, 중년여성의 특성과 중년여성의 외모 특히 헤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연구문제설정과 연구 설계로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측정도구 즉 설문지의 구성, 분석방법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 및 해석으로 중년여성들의 빈모에 대한 실태, 중년여성들의 가발착용에 대한 실태와 효과, 그리고 선호도 등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언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언급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가발의 유래

우리나라는 머리술이 적은 여인들이 예전에 머리술이 많아 보이라고 덧 넣었던 땀 머리인 다리(月子)를 달아 쪽을 진 것이 가발의 시초이다. 옛날 사람들은 머리 모양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사용하였고 현대 여성들의 가발사용은 멋을 내기 위해서나 탈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미용적 측면은 같다고 보아진다. 삼국사기 등의 문헌에 의하면 다리의 관련된 기록이 있다. 신라 성덕왕 때와 경문왕 때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편에 예물로 다리를 가져가게 한 기록이 있다⁵⁾.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여의도의 머리 모양이 다리를 이용한 땀아서 위로 둥글게 둘러 얹은머리라고 고증되어 있다. 조선시대 상류사회의 여인들이 사용한 가발로 예전에, 부녀들이 예장(禮裝)할 때에 머리 위를 꾸미던 장식품, 은으로 용이나 봉황새 따위의 형상을 만들고, 좌우 쪽으로 긴 머리털을 달아서, 가르마 위에 대고 뒤로 갖혀 매었던 첩지가 있으면 조선시대 왕후의 평상시의 머리모양으로는 조선시대에, 부인이 예장할 때에 머리에 얹던 큰머리,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다리로 된 큰 머리를 얹은 다음, 봉잠과 밀화잠을 양편으로 찢러 화잠으로 쪽을 만든 뒤 옥판을 앞에, 화잠을 좌우에 1개씩 꽂고 위에 활머리를 얹었던 어여머리가 있고 궁중에서 처음 들어온 시녀들이 상궁이 되기 전에 하던 머리로 무수

5) 류은주(2003), 『모발미학사』, 대전: 이화, p. 249

리 머리 등이 있다.

서양에서는 B.C. 3C경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가발이 사용되었으며 장식은 물론 머리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B. C. 12C경에는 헤나염료, 인디고 등으로 빨강, 파랑, 노랑 등 여러 가지 빛깔로 염색하였다.

고대 이집트 가발은 대개 밀랍 등으로 컬(Curl)과 변발을 많이 만들었으며 남녀가 함께 사영하였고 일반적으로 남성은 자기머리를 면도하고 사용하였으나 여성은 자기머리 위에 가발을 썼다. 고대 로마의 남성은 대머리를 감추거나 변장을 위해서 가끔 사용하는 정도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의 모양과 빛깔이 다양화되면서 폭넓게 이용되었다⁶⁾.

그리스 로마시대 때는 뒤로 가발을 이용해 땀아 붙인 머리가 유행하였고 르네상스 시대는 곱슬곱슬한 빨간 머리카락으로 덮는 가발을 사용하였다. 17C초에는 프랑스 궁전에서도 가발 쓰는 것이 유행하였고 17C 후반에는 유럽 전체에 보급되었고 18C에 더욱 유행하였으며 19C후반에는 프랑스에서는 여성용 가발이 크게 유행하였다. 18C때에는 나이, 직업, 의복에 따라 또는 신분표시용으로 사용되었다. 장신구로써 이용된 가발은 영국법정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남성의 장신구가 되었다⁷⁾.

19C 가발을 사용하여 둥글게 말고 꽃과 장식한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오늘날의 가발은 프랑스에서 유래되었으며 20C에 인조가발의 개발로 더욱 용도가 다양해졌으며 많은 스타일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가발은 과거부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

6) <http://www.isiswig.com>

7) 손수철, 『머리카락』, 한국모발연구회, p.80.

되어져 왔으나. 사람들은 가발의 착용을 머리술이 적거나 대머리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능적인 부분만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용 시 외적 불편함에 따라 단순 사용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 가발은 기능성과 더불어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욕구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미용 수단의 일부로 사용되어짐으로서 이전 사회와는 다른 다양성, 독창성 및 역동성을 표출하고 있다. 현대의 가발은 가발을 만드는 소재, 디자인, 착용 형태 및 착용 방법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전체 가발(Wig) 및 부분 가발(Hair Pieces)과 같은 맞춤형 특수 가발, 암환자의 탈모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 가발 및 연극·영화·뮤지컬·드라마의 문화 콘텐츠 등에 사용되어지는 가발과 같은 새로운 형태 및 영역의 가발의 쓰임새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제2절 가발의 종류

가발은 권위의 상징으로 영국 대법관들은 복슬복슬한 흰 가발을 쓰고 17세기 풍의 복장을 한다.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영연방 국가들은 다 이런 ‘강요된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홍콩영화를 보다보면 법정 장면에서 대법관들이 영국식 차림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쨌든 영국의 대법관들이 가발을 착용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옛날에는 가발을 장식용이라는 목적 말고도 신분의 위엄을 과시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 물론 대머리(Bald Head)를 감추기 위해서도 가발을 착용했다.

기록으로 확인된 최초의 가발은 기원전 3000년 무렵에 등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에 가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가발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주로 자연의 재료를 이용하여 가발을 만들었다. 인간의 모발 또는 양, 염소의 털 혹은 종려나무의 잎이나 검은 천 등이 그 재료들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크게 자연모와 인공 모로 만든 것으로 나누어진다.⁸⁾

화학섬유로 만든 인공 모 가발은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이점 때문에 널리 이용되었다. 다른 사람의 모발로 만든 자연모 가발은 인공모 가발보다 덜 부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적다는 이점이 있으나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았다. 가발은 인간의 외양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미용수단의 일부로 사용되듯이 두피의 결손 된 부위를 보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지기도 한다.

두피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전체 가발(Wig)과 대머리(Bald Head)를 위한 맞춤형 가발과 같이 두피의 일부분을 덮거나 길이를 일시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 가발(Hair Piece)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발은 형태별 분류, 생산 공정별 분류, 원료별 분류로 나누어지며 형태별 분류에 따르면 Wig, 위그릿츠(Wiglet) 및 Fall로 나눌 수 있으며 Wig는 머리 전체의 모형가발로서 화장, 연극 등에 이용된다. 부분가발인 Wiglet은 두발의 미관에 사용되며 Fall은 장발을 말한다.⁹⁾

8) 한미란(2006), 「시대적 배경에 따른 가발의 변천과 현대의 사용되는 특징 연구」, 남부대학교 산업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4.

9) 최만종(2004), 「脫毛에 따른 假髮着用에 관한 技術的 考察」,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3-37

1. 전체 가발 및 부분 가발 (Wig & Toupee)

위그(Wig)는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두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B. C.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 오랜 세월에 걸쳐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가발의 종류로는 몇 내기 뿐만 아니라 패션에 따라 전체 가발(Wig)과 부분 가발(Toupee)이 있다. 전체가발인 위그(Wig)는 두상 전체를 감싸는 형태이며 부분가발인 헤어 투피(Hair Toupee)는 두상의 일부를 덮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그나 헤어피스에는 많은 종류의 크기와 길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 헤어피스는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풍부한 변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경우에 맞는 모임의 성격이나 의상에 맞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시킬 수 있다. 헤어피스의 사용은 낮 동안의 활발했던 분위기에서 저녁의 안정감 그리고 우아하며 풍부한 정감이 있는 분위기 연출에 필요한 부수적 과정이기도 하다. 우아한 표현을 할 때 요란한 색상의 의상을 입지 않는 것처럼 이브닝 스타일에는 정연하고 우아한 얼굴에 알맞은 우아함과 간결성을 가져야 한다.

위그(Wig)란 두상의 95~100%를 감싸는 형태의 전체 가발로서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가발의 선택기준은 달라진다. 탈모면적이 아주 넓은 대머리(Bald Head)유형이나 두피가 심하게 비쳐 보일 정도의 모발 숱이 극히 적은 경우와 같이 빈모를 보완하기 위한 선택과 기존의 헤어스타일에서 전혀 다른 스타일로 변화를 주고 싶을 때의 미적인 선택, 장기간의 여행 시 모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상황에 따른 선택 등과 같이 여러 가지의 목적이나 조건에 맞추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써 가발을 사용한다. 가발은 모발의 대체물(Replacements)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장식으로서 또 다른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준다. 개인적인 선택은 모량이 적거나, 손상모, 대머리 등의 경우에 가발을 이용하며 신경계통의 충격 또는 항생제에 의해 빈모가 심한 경우, 용도에 따라 패션스타일의 가발을 선택한다. 이는 모발의 길이 또는 볼륨감 증가에 목적을 가진다.

장식 또는 특별한 목적에 따른 경우 생리적으로 곱슬머리(Curly Hair)인 경우 매직에 의한 손상 대신 위그(Wig)를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인 직교머리(Straight Hair)로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그 외에 패션 가발이 있는데 길이가 짧은 가발은 분장용, 연출용, 장식용 등 주로 멋을 내기 위한 가발로 사용되고, 패션가발의 주를 이루는 길이가 긴 것은 형태학적으로 폴(Fall)에 해당된다. 그 밖에 컬러 위그는 부분 및 전체가발로서 화려한 색상을 위주로 한 패션가발이다. 그리고 헤어피스는 부분가발의 일종으로서 모발의 길이와 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헤어 포인트는 일종으로서 리본 등과 같이 머리 위에 붙이거나 꽃을 수 있는 장식용으로서 여성의 머리에 변화를 주기위한 작은 가발인 위그릿츠(Wiglet)에 해당한다.

2. 현대의 패션 가발 및 전체 가발

21세기는 외적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때와 장소에 맞는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가발의 스타일까지도 다양해지고 있다.



(출처 : <http://gabalnara.com>) <그림1> 남성패션 전체 가발



(출처 : <http://gabalnara.com>) <그림2> 여성패션 전체 가발

3. 현대의 부분 가발

부분가발은 사람마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돋보이게 또한 전체적인 스타일을 바꾸기 원하지 않고 각자의 취향이나 스타일에 맞게 변화를 주기 좋은 재료이다. 또한 부분가발은 패션적인 스타일과 기능적인 스타일로도 볼 수 있다.

1) 패션 스타일

패션 스타일의 가발은 짧은 모발을 길어보이게 하거나 반대로 짧은 머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등 기존의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멋내기용 가발이다.



(출처 : <http://gabalnara.com>) <그림3> 여성 뒷머리 부분 가발



(출처 : <http://gabalnara.com>) <그림4> 여성 앞머리 부분 가발

2) 기능적 스타일

기능적 스타일은 두피에서 모발이 빠져버린 여성형 탈모 및 빈모 남성형의 탈모로 인하여 자신의 단점을 커버하고 또한 기능적으로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가발의 형태로 현대인이 병적요인, 유전, 스트레스, 약물, 영양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착용하는 가발로서 말 그 자체로도 알 수 있는 가발이다.



(출처 : <http://himo.co.kr>)

<그림5> 여성 탑 부분 가발



(출처 : <https://www.milan.co.kr>)

<그림6> 남성 탑 부분 가발

4. 부착 방법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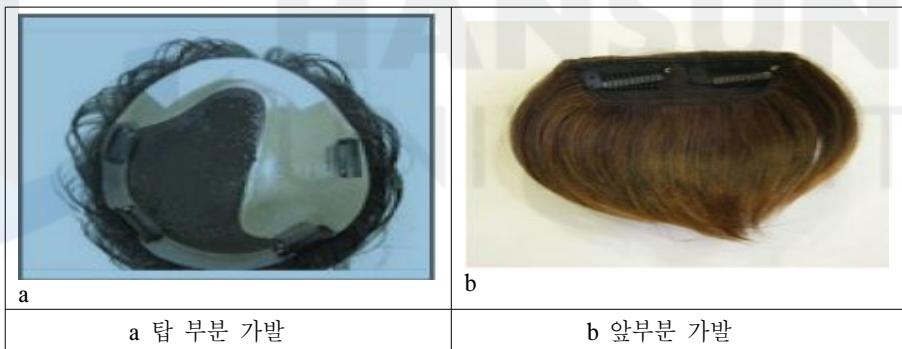
1) 착탈식 가발

가발 사용자가 필요시 가발을 썼다 벗었다가 가능한 가발로 클립, 양면테이프, 자모결속방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클립

클립을 이용하여 가발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탈모된 부분의 주변에 잔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 고객에게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본인이 원할 때 탈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발이 벗겨질 것 같은 불안감과 장기간 사용 시 클립부분의 자모가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¹⁰⁾



(출처 : 한미란(2006), p.58) <그림7> 착탈식 탑 부분가발과 앞부분 가발

(2) 양면테이프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가발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탈모된 부분에서 머리가 없는 경우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식이며 본인

10) 한미란(2006), 「시대적 배경에 따른 가발의 변천과 현대의 사용되는 특징 연구」, 남부대학교 산업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7-61

이 원할 때 탈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땀이 많은 고객의 경우 가발이 탈락할 수 있어 다소 불안하다.



(출처 : 한미란(2006), p.58) <그림 8> 양면테이프형 가발

(3) 자모 결속방식

가발시술시 탈모된 부분의 자모를 그대로 살려둔 채 가장자리 양쪽 측면의

튼튼한 자모 중 일부만을 이용하여 가발을 결속하는 방식이다.

특수 망으로 되어 있어 통풍이 우수하며 시원하고 착용감이 좋다. 또한 가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머리를 자유롭게 감을 수도 있다. 이 방식은 본드식 부착방식의 단점을 대폭 보완, 개선하여 특허를 받은 기술로 부작용이 없다.

2) 고정식 가발

가발을 머리에 고정시켜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관리만 받으면 되는 형태로 밴드 방식, 증모, 이식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출처 : 한미란(2006), p.60) <그림 9> 고정식 가발

(1) 밴드 방식

본드식 부착방식이라고도 하며, 탈모부분의 자모를 밀고 가장자리 부분에 본드를 이용하여 가발을 부착하는 방식이며 결속력이 30~50일로 우수하나, 여름에는 약 20일정도로 접착력이 약하며 머리를 시원하게 감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칫솔을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본드를 도포하여 부착해야 함으로 두피에 심각한 손상과 냄새가 날 수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접착제의 경우 안정성에 대한 확인도 없이 수입하여, 소비자에게는 의료용이나, 외국에서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이라 말들하고 있지만 아직 검증된 바 없는 제품이다.

시술시 본인의 머리를 잡아 당겨 인모를 묶는 과정에서 본인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2) 증모방식

한 가닥의 본인 머리카락에 2~3개씩의 인조모를 연결시켜 늘려가는 방법으로, 가발처럼 착탈식이 아니며 이식처럼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과 밝은 곳에서는 매듭의 표시가나며, 시술 후 약2개월이 지나면 머리카락의 이

탈과 동시에 머리주위의 표시가나는 단점이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앞이마 부분은 시술이 불가능하며, 시술시간이 길어 번거롭고 증모 량에 한계가 있다.

(3) 이식술

뒷머리 부분의 모근을 채취하여 필요한 부분에 옮겨 심거나 탈모 주위의 두피를 오려내어 두피를 축소시키는 방법이다.

탈모가 심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시술범위에 제약이 있으며 시술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유전전인 탈모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인조 모발을 옮겨 심는 이식 방법 등이 있다.

제3절 가발 헤어 코디네이션

본 절에서는 가발응용 헤어코디네이션 연출법을 소개함으로써 빈모 및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자연스럽고 불편함 없는 헤어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해야 하므로 얼굴형과 그리고 빈모 및 탈모의 형태에 따라 가발의 선택이 달라지므로 얼굴형의 단점과 장점을 먼저 파악하고 어떠한 헤어스타일이 자신에게 어울리며 만족과 멋을 창출해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¹¹⁾

11) 장미희(2002), 「脫毛顧客에 對한 假髮應用 및 헤어코디네이션에 關한 研究」, 大邱가톨릭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pp.21-27

1. 둥근형(Round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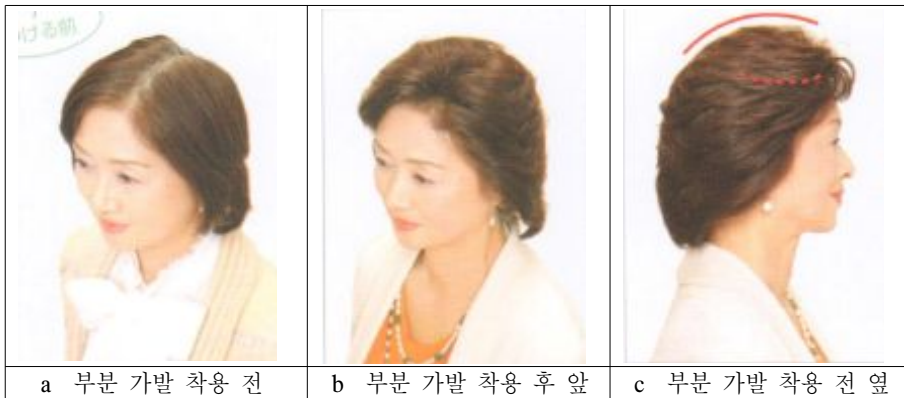
둥근 얼굴형은 수평방향으로 3등분하였을 때 중앙 부분이 넓게 보이며 양턱은 짧고 각이 없으며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얼굴형의 길이가 거의 같아 보이면서 짧게 보인다. 둥근 얼굴은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 둔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도 쉬우므로 이마는 드러내는 것이 좋고 헤어라인을 길게 떨어뜨려 얼굴이 가름하게 보이는 스타일이 좋으며 옆머리에 볼륨을 살리는 웨이브 스타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둥근형의 얼굴 형태를 가진 빈모 및 탈모 고객의 여성일 경우에는 귀여운 이미지를 살려주면서 옆의 볼륨을 없애주고 센터 부분에 엑센트를 높이고 포인트를 주는 가발이 잘 어울리며 전체적으로 단차 커트가 되어 있는 세미쇼트 스타일이나 올프 컷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둥근형의 빈모 및 탈모 여성고객은 프론트 머리를 꾸며주는 쇼트보브 스타일이나 센터부분이나 사이드 부분에서 얼굴을 약간 감쌀 정도의 커트가 포인트이다. 사이드에서 헤어라인을 페이스라인으로 가볍게 돌려주는 자연스러운 쇼트보브 스타일이나 뒷부분부터 앞을 향해 자연스럽게 커트한 헤어스타일, 사이드머리를 샤프한 느낌이나게 커트한 짧은 머리 스타일이, 30대여성의 빈모 및 탈모고객은 사이드에서 웨이브지게 넘긴 짧은 머리카락이나 옆 가르마에 양 사이드를 짧게 커트하고, 센터 부분에 볼륨을 준 쇼트헤어가 어울린다.

40~50대의 중년의 빈모 및 탈모고객은 퍼머넌트하여 킬한 부분을 업시킨 프론트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 단점이 보완된다. 정수리에 빈모 및 탈모가 있는 고객은 탑피스를 이용하여 탑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헤어스타일이 자연스럽다.



(출처 : 일본가발회사 FOUNTAIN 카탈로그)

<그림 10> 미디엄(Medium) 단발커트 스타일(탑 부분 가발)

젊은 여성의 탈모고객은 보브 스타일이나 긴 머리 스타일을 선호하지만 턱까지 내린 단발 형 커트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며 옆가리마를 타서 긴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는 스타일이 어울린다.

둥근형의 얼굴은 사선가르마를 이용해서 둥근 얼굴이나 각진 얼굴에 높이를 줄 수 있다. 긴 머리 스타일을 연출할 때는 턱이 아랫부분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어 시선을 아래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2. 타원형(Oval Face)

타원형은 매우 이상적이 얼굴형이라 말 할 수 있다. 이 얼굴형은 중앙부분이 넓어 보이고 아래 부분은 좁아 보이며 헤어라인은 둥글며 양턱은 각이 없고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원형의 얼굴형은 어떤 가발을 착용해도 표현이 잘되므로 장소나 분위기에 따라서 컬러나 웨이브등을 응용하여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자기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업시킨다.

타원형의 여성 빈모 및 탈모 고객은 여성스러움과 지적인 이미지나 청순한 이미지는 선택폭이 넓기 때문에 나이, 직업, 장소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에 빈모 및 탈모고객 중 가장 가발의 고마움과 필요성을 느끼며 탈모가 완치되어도 탈모용 가발에서 패션용 가발로 계속해서 착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적으로 가장 많은 위안을 받는 고객들이다.

세팅스타일이나 전체적으로 컬((Curl)이 굵은 웨이브스타일(Wave-Style)도 어울린다. 원랭스보브 스타일 중에서 정수리에서 방사 형태로 머리가 흘러내리는 프론트, 사이드, 네이프에 걸쳐서 각각 같은 길이로 커트된 코케티쉬(Coquettish)한 보브 스타일이나 전체적으로 둥근 원랭스 스타일이 어울린다.

20~30대 탈모 고객 중에 부분가발이나 전체가발을 착용했을 때 정수리나 센터 부분에 걸쳐 굵고 루즈한 울동적인 웨이브가 어울리며 사이드와 네이프 부분은 다소 짧고 세련된 스타일이 어울린다.

약간 옆 가르마의 짧은 머리도 어울리며 가르마가 없는 짧은 머리도 발랄해 보인다.



(출처 : 일본가발회사 FONTAINE 카탈로그)

<그림 11> 쇼트(Short) 단발커트 스타일(탑 부분 가발)

중년의 탈모 고객은 온화하며 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 단정한 안 마름 단발 스타일에서 정수리부분만 웨이브를 접목시키든지 웨이브형 쇼트 스타일도 짧어 보이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시킬 수 있다.

3. 사각형(Square Face)

얼굴이 커 보이는 형태이며 가발을 선택할 때 신중을 해야 한다. 이 얼굴형은 강하지만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숙한 이미지 또는 활동적인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리젠트스타일과 같은 사이드의 머리를 붙여 뒤쪽으로 흘러 넘긴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며 매우 짧은 스타일에 프론트를 약간 볼록하게 세운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사각형의 헤어라인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양쪽 턱은 각이 있어 돌출 되어 보인다. 따라서 사각형의 이마와 턱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얼굴형은 짧으며 얼굴의 넓이와 길이가 거의 동등하다¹²⁾.

40~50대의 빈모 및 탈모 고객은 이마를 드러낸 짧은 머리가 어울리며 센터 부분을 살려 주는 웨이브가 잘 어울린다. 사각형의 얼굴 형태를 가진 중년여성의 빈모 및 탈모고객은 정수리에서 방사 형태로 머리가 흘러내리며 프론트가 네이프의 길이보다 긴 보브 스타일이나 탑 부분에 볼륨을 살린 매우 짧은 헤어스타일이 세련되어 보인다.

헤어스타일의 삼분법은 볼륨, 라인, 포인트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각형의 빈모 및 탈모고객은 헤어스타일의 삼분법을 잘 접목시켜서 표현하면 보다 나은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수 있다.

큰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것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단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얼굴을 내어 놓거나 귀 또는 귀 윗부분을 살리는 스타일을 선택해야하며 중간 길이를 원하면 턱을 감쌀 정도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

12) 권오혁(2009),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모발길이의 수치화가 커트교육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p. 85



(출처 : 일본가발회사 FOUNTAIN 카탈로그)

<그림 12> 미디엄 레이어(Layer)컷 스타일(탑 부분 가발)

4. 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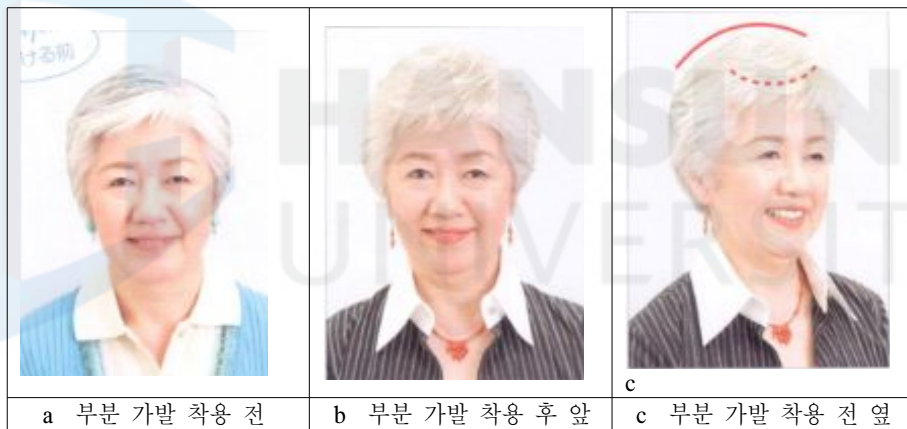
역삼각형의 얼굴은 윗부분은 이마가 넓으며 아래턱 부분이 좁고 뾰족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헤어 라인 부분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얼굴형은 얼굴 면적보다 길이가 짧게 느껴지는 얼굴이다.

역삼각형의 얼굴은 지적인 이미지와 쌀쌀한 여성적 이미지와 스마트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귀의 아래쪽으로 풍만함을 살려주는 것이 좋으며 세미 롱 스타일이 어울린다. 역삼각형의 얼굴형은 지적인 이미지를 풍기므로 단정한 보브 스타일도 잘 어울린다.

원랜스 스타일 중에 사이드를 부풀려준 미디엄 보브 스타일이 어울리며 머리끝을 안 말음 스타일이나 바깥말음 헤어스타일 형태가 어울린다. 이런 스타일의 형태는 빈모 및 탈모고객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만족감을 준다. 그것은 풍성한 스타일에서 오는 위로감일 것이다.

20~30대 여성 탈모 고객일 때는 프론트에서 페이스라인에 걸쳐 머리를 넘긴 롱 헤어스타일에는エレ강스한 분위기가 나는 웨이브 헤어나 짧은 형태의 웨이브 쇼트도 발랄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굵은 컬로 전체를 말은 스타일에 제품 등을 사용해 업 시킨 세련된 이미지의 짧은 머리로 잘 어울린다. 정수리를 중심으로 방사 형태를 이룬 헤더 헤어(Feather-Hair)형 스타일이나 보이쉬한 짧은 머리가 어울린다.

40~50대의 빈모나 탈모 고객은 자신의 체형을 참고해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출처 : 일본가발회사 FOUNTAIN 카탈로그)

<그림 13> 쇼트컷 스타일 (탑 부분 가발)

5. 다이아몬드 형 (Diamond Face)

얼굴 중앙부분이 넓으며 돌출된 형으로 상하 부분이 좁은 게 특징이다. 다이아몬드형의 양턱은 약간의 각진 것 보다는 곡선으로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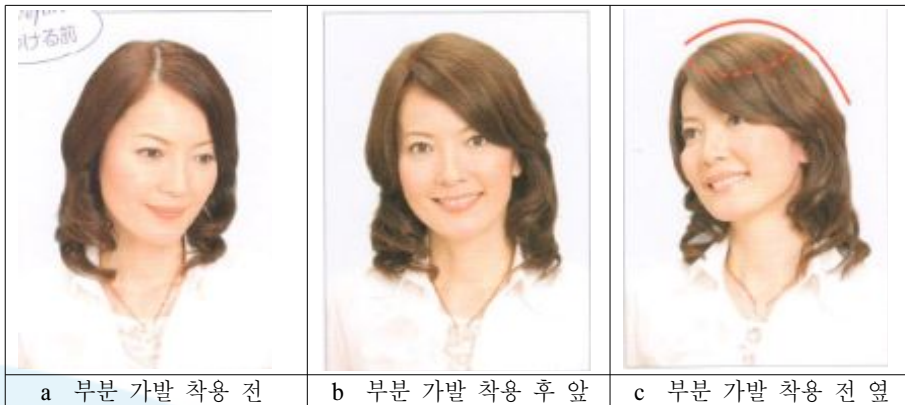
어저 있으며 긴 얼굴에 속하는 편이다. 다이아몬드형의 얼굴형은 적극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이미지와 도전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귀밑의 턱 부분이나 광대뼈에 각진 얼굴형은 옆머리를 양쪽으로 늘어뜨리거나 옆가리마로 각진 얼굴을 커버하거나 얼굴을 노출시켜 깔끔한 헤어로 연출하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다이아몬드 형은 광대뼈를 살짝 덮는 커트스타일은 자신의 결점을 더욱 눈에 띄게 하므로 과감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좋다.

헤어스타일은 포인트 없이 이마를 덮는 스타일은 강하고 답답한 인상을 풍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진 얼굴의 강한 이미지를 부드럽고 이지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헤어스타일이 좋으며 20~30대의 탈모고객도 사이드 가르마나 센터 가르마의 자연스러운 웨이브의 롱헤어 스타일이나 30대 빈모 및 탈모고객이나 40~50대의 탈모고객도 웨이브를 살려주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 다이아몬드형은 가리마 위치가 중요하며 옆가리마로 지적인 분위기를 앞가리마로 청순함을 가리마 없이 흘러내리는 스타일은 성숙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형은 섹시한 이미지이므로 개성적인 연출을 하는 것이 좋다. 화려하며 럭셔리한 느낌의 퍼머넌트 웨이브나 굵은 웨이브가 어울리며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를 표현시키는 것이 좋다.

다이아몬드 형의 빈모나 탈모 고객은 원랜스 보브 스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사이드 가르마의 루즈한 웨이브의 롱 헤어나 끝부분에만 웨이브를 하여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며 20~30대의 탈모 고객은 컬리 헤어 스타일 중에 프론트의 머리가 한쪽 눈을 감싸게 한 짧은 컬리 헤어스타일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40~50대의 빈모 및 탈모 여성 고객은 이미지가 강해 보이지 않게

부드러운 웨이브와 귀를 내놓은 깔끔한 스타일의 굵은 웨이브형 컷가 어울린다.



(출처 : 일본가발회사 FOUNTAIN 카탈로그)

<그림 14> 미디엄 웨이브 스타일(탑 부분 가발)

제4절 중년여성의 헤어스타일

1. 중년여성의 개념

인간은 일반적으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인생전반에 대한 개방적 수용과 자기 확대로 전 기능인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며 성숙된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년기에 이르게 된다. 여성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성들의 질적인 삶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융(Jung(1955))은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삶을 중년기라고 하여 이 시기를 성격발달의 장점이라 주장하였고¹³⁾, 기명자(1998)는

여성에게 중년기는 자녀양육의 역할이 감소되면서 자유 감의 증가로 잠재된 능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40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중년으로 정의하였다¹⁴⁾.

가족생활주기를 지표로 사용했을 때는 연령보다는 가족관계의 변화과정과 생활사건의 개념 등이 고려된다. 보랜드(Borland(1978))는 막내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나 대학진로, 결혼 등으로 출가한 이후의 시기와 관련시켜 중년기를 정의하였다¹⁵⁾. 그러나 우리나라 가족 특성상 위와 같은 서구가족의 가족생활주기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첫째,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이 곧 독립과 연결되지 않고 둘째,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와 맺는 정서적, 물질적 유대가 강하기 때문이다¹⁶⁾. 그러므로 자녀의 독립의 개념을 완전한 독립 즉, 출가의 의미로 보기보다 같은 가족 내에 있으면서도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자 시도하는 시기로 보았다¹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중년기 여성은 기명자(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녀양육의 역할이 감소되면서 자유 감의 증가로 잠재된 능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40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여성을 중년기 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3) Jung(1955),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p.312

14) 기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56-58

15) Borland(1978), *Research on Middle Age :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18(4), 379-386

16)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2000),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서, pp.11-13

17) 최경란(2006),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관련변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46

2. 중년여성의 특성

1) 심리적 특성

중년여성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아개념의 변화이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자아정체성의 상실과 성취감의 결여이다. 특히 자아정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아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순정적 태도로 남편이나 자녀만을 위해 살아온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취업여성보다 심각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체적인 쇠퇴와 삶의 유연성에 대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자기 확신이 증가되며,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최고에 이르는 시기가 되어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가 된다고 하였다. 정체감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기나 정체감을 상실한 노년기에 인간은 가장 비현실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중년기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중년기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은 자신이 과거에 이루어온 업적이나 직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업적과 직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 문제는 없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과거의 업적과 직업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취감의 결여라는 심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과거의 업적이나 직업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을 존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변화를 꺼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만든다. 이는 과거의 업적이나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릭슨(Erikson(1968))은 한 개인이 40세경에 이르면 발달적 위기 중 “제7의 심리사회적 위기”(Seventh Psychological Crisis)에 처하게 되며 이를 생산 대 침체(Generative & Stagnation)로서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적 개인은 젊은 세대를 지도하고 확립시켜 주는데 관심을 가지며 이런 생산 감의 발달에 실패한 사람은 침체되어 자기 방중에 희생된다고 한다.¹⁸⁾

페퍼라지 & S. W. 올드(Papalize & S. W. Olds(1981))는 중년기란 과거자신의 생을 재평가하고 각자의 현재 신체적 조건, 직업 및 인간관계 등의 관점에서 미래의 계획을 수정하는 시기로 보았으며, 스피치 & 카이지(Speech & Craig)는 중년기를 성취감과 지도력을 발휘하는 시기라 하였다¹⁹⁾.

메키너 J·메키너(Machina J·Machina(1980))은 이때에 인생의 정열과 모험심이 상실되고 그렇게도 소중하게 느꼈던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며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낯은 가치 대신 나름대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²⁰⁾.

윤진(1991)에 의하면 민감한 반응으로 “건강염려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전망(Time Perspective)의 변화로서 죽음에 대해서도 어떤 개념을 갖기 시작하며 자기이해의 수단으로 삼면경(三面鏡)을 사용해 부모, 자녀, 자기 3개의 거울을 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특히 내향적 경향이나 여성의 우울성향을 강조하였다²¹⁾.

18) 김남순(1984), 「중년기의 성격발달에 관한 이론적 접근」, 『경상대학교논문집, Vol. 24(1)』, pp. 169-180

19) Papalize, D. E. & Olds, S. W. (1981) *Human Development*. USA: Mcgraw-Hill Inc. p.23

20) Machina J · Machina(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 Ab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ANY : John Wiley. pp.37-39

21) 윤진 (1991), 「중년기 위기감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이처럼 중년인들은 신체적 노화, 갱년기 증상들을 겪으면서 의욕의 감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기 쉽고 이제껏 수립한 자아정체감에 회의를 느끼고 재평가를 시도하며 가정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혼선을 가지게 되며 이 혼선은 중년여성의 경우 더욱 심하다(김남순, 1984). 따라서 중년기는 변화된 역할에 대한 재적응을 위해 삶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할 시기라 보여 진다.

김남순(1984)은 중년인들이 현재 자아실현에 부적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아정체감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어 중년인들이 삶의 의미충족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모든 것이 중년특유의 위기(Midwife Crisis)상태를 초래하여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 사회적 특성

중년기의 사회적 발달특성에 관해 많은 견해가 있지만 그중 헤비그러스(Havighurs(1953))는 인생주기 여섯 단계 중 중년기를 다섯 번째 단계로 보았고 사회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최고에 달하고 사회 역시 그들에게 최고의 요구를 하는 시기로 보았다. 헤비그러스(Havighurs(1953))의 사회적 발달과업의 견해를 요약 해 보면 첫째, 아동기·청소년기 자녀들을 책임 있고 행복한 성인이 되도록 돕는 일, 둘째, 중년여성 자신이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하여 사회적, 시민적 책임을 수행하는 일로서 자신이나 가정의 범위를 초월하여 시민단체에서 새로운 사회활동을 하는 제반 여러 문제에 시간·노력 및 자원을 투여하는 일, 셋째, 만족할만한 업적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일, 넷째, 중년기의 여가활동을 발전시키는 일, 다섯째, 한 인간으

로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만족을 발견하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활동을 즐기며 지속적인 친밀감을 발전시켜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일, 여섯째, 중년여성의 발달특성 변화에 대한 적응, 일곱째, 노부모에 대한 적응 부모의 역할이 역전되므로 노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고 노부모의 부양이나 죽음에 대한 적절한 정서적 준비가 중년기의 사회적 특성이라 하겠다.²²⁾

3. 중년여성의 미적관심과 헤어스타일

21세기 현재는 중년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이 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전의 남성만의 고유 권한이라 여겼던 경제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고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 활동을 하다보면 여성도 남성 못 지 않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중년여성의 탈모 및 빈모 등 신체 건강에 특히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자연스러운 변화 이외의 신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인간의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LG 카드사가 테마 리서치로 2005. 5. 8부터 5. 14까지 대도시 거주하는 30~40대 주부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76.4%가 '외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²³⁾

가는 길목에서 여성들은 스스로에게 그 동안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이 자신을 가꾸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대나 성별에 관계없이 미의 추구는 하나의 목표처럼 인식되고

22) Havighurst(1953),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Longmans, Green, pp.78-80

23) 인터넷자료, www.nocutnews.co.kr

사회적 이상에 맞는 미를 획득하기 위해 수많은 몸의 변형의 방법들이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²⁴⁾

현대 중년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중년여성들의 미적 이미지 구축은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얻고 개개인의 관계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얼굴과 헤어스타일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으며, 특히 헤어스타일은 얼굴을 강조하고 인상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중년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현대의 중년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⁵⁾

남녀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인류의 욕구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이전에는 주로 신체적 건강에 신경을 쓴 사람들도, 경제수준을 확보한 다음부터는 ‘보다 더 아름다운 것’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²⁶⁾ 중년여성의 경우 급격한 신체변화로 인해 외적으로 신경 쓰이는 시기이나 경제적으로는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적으로 소비가 늘 수 있는 계층이다.

중년여성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인물이며 경제적으로는 가장 여유로워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미용시장에 최근 새로운 소비주체를 떠오르고 있다.²⁷⁾

24) 김나련(2006), 「일하는 중년여성의 몸 변형 경험에 대한 연구」 김나련, 숙명여대 대학원석사학위, pp.3-4

25) 최혜정(2005),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26) 이상형(2009), 「중년여성의 외모관심도 및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p.1

27) 혼성림(2007), 「주름개선 기능성 한방 화장품의 선호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외모의 건강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몸매나 체형, 다이어트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체형관리와 근육을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식이요법에 이르기까지 요소에 관련된 정보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²⁸⁾

외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함의된 미의식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자신을 평가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호의적인 인상을 창조하고 싶어 하며²⁹⁾ 사회적 상호작용 시 외모관리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타인에게 주목받는 중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외모는 성공의 조건이 되거나 사회적 지위나 부를 상징하는 기준이 될 만큼 우리 상황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³⁰⁾ 중년여성들은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중년여성들의 미적 이미지 구축은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얻고 개개인의 관계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으며, 특히 헤어스타일은 얼굴을 강조하고 인상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

28) 박수진(2006), 「남성의 패션, 헤어스타일, 피부, 신체이미지에 관한 유형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

29) 금봉인(1999),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 학회지 제5권, 제1호』, p.124

30) 임숙자의(2002), 『현대의상 사회심리학』, 수학사, pp.58-59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대의 중년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³¹⁾

현대의 중년여성들은 육체적, 환경적으로 제약 및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과 소홀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나 가치관의 상실, 근심과 좌절, 대인적 고립, 사회적 소외 등을 경험하게 된다. 생활 만족도란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조건 속에서 자신이 과거,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만족감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³²⁾ 중년여성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 데에도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³³⁾

위와 같이 중년여성들은 신체적 변화에 따라서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헤어스타일 즉 빈모나 탈모에 따른 가발에 대한 실태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중년여성들이 가발을 패션화 할 수 있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31) 최혜정(2005),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32) 이숙영(2006), 「중년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연구」, 대전대 보건서포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33) 김혜란(2006),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특성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제 3 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현대인의 외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헤어스타일의 관심이 많아지자 시중과 홈쇼핑 등에서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외적인 면을 해결 할 수 있는 기능성 부분 가발이 조금씩 활성화를 이루고는 있으나 가발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대중화 되지 못한 점 때문에 고객들의 헤어스타일을 커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년 여성이나 머리술이 적은 고객의 헤어스타일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가발에 관한 이미지와 선호도를 알아보고, 가발 착용 시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중년 여성을 위해 미용 산업과 가발산업의 조화로운 마케팅으로 부분가발도 어떤 특정 대상인 아닌 필요에 따라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부분가발의 패션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년여성의 빈모 원인 및 빈모관리 실태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이용 실태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이용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사용 후 효과(만족도, 심리적 안

정감, 스타일연출에 도움정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사용 후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6: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선호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제2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40대~50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년여성을 중심으로 부분가발에 대한 착용실태 및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을 추출함에 있어서 사용한 표본추출 방법은 유의적 표본추출방법(Purposive Sampling)이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발생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설문지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에 사용될 최종 설문지를 확정해 서울과 수도권 거주 40대~50대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총 400부를 배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32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자 11부를 제외하고 총 30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3절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내용은 조사 대상인 중년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중년여성의 빈모실태,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사용 실태,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사용 효과, 중년여성의 부분가발에 대한 선호도 관련 영역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지역, 소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중년여성의 빈모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모가운데 헤어스타일이 차지하는 비중, 빈모시작시기, 빈모로 힘든 점, 빈모원인, 빈모 예방 및 관리의 효과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헤어스타일 연출시 가발 사용여부, 빈모나 탈모로 신경 쓰인다면 가발을 사용하겠는지 여부, 부분 가발 사용하려는 목적, 가발 구입 시 믿음이 가는 곳, 미용실에서 가발 관리 한다면 미용실 이용의사, 가발가격에 대한 적정성, 부분가발이 필요한 상태, 부분 가발 사용여부, 부분 가발 사용동기, 부분 가발 사용 전 걱정된 부분, 가발 착용 후 주변의 반응, 부분가발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부분가발이 패션화로 발달이 되면 사용의사 등 13문항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사용실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 후 만족도, 사용 후 심리적 안정감, 사용 후 도움정도, 부분 가발 사용 후 불만족 이유, 보완점, 가발 구입 시 고려사항, 부분 가발 착용 시 미용실 이용 불편한 점 등 7문항으로 파악하였다.

다섯째, 중년여성의 부분가발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젊어 보임, 이미지 변화, 자신감 회복, 생활의 활력,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연출, 원하는 볼륨감, 헤어스타일 다양화, 일상생활의 편리함, 자유로운 손질 가능 등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4절 자료 분석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SPSS(15.0)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전체 항목의 빈도, 퍼센트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만족도, 선호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 선호도, 심리적 안정감, 도움정도 등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NOVA)을 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제1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과 같다.

먼저, 연령에서는 40대가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이유는 40대 중년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보아지며 50대는 17.2%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14.3%, 미혼이 11.4%로 조사되었고,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직업여성이 사회진출을 함으로서 학력의 제한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지며 직업은 기타가 46.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높은 이유는 직업의 다양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직업이 생겼기 때문이거나 자신의 직업의 노출을 꺼려하는 현대인의 성향으로도 보아진다. 다음은 판매직 및 서비스직이 28.0%로 나타났다.

지역은 서울이 72.4%, 경기도가 27.6%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과 경기도지역으로 제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09, 100%)

변 수	집 단	N	%
연령	40대	255	82.8
	50대	53	17.2
결혼여부	미혼	35	11.4
	기혼	229	74.4
	기타	44	14.3
학력	고졸이하	107	34.7
	전문대졸	128	41.6
	4년대졸	59	19.2
	대학원 이상	14	4.5
직업	전문기술직	30	9.8
	사무직	47	15.3
	판매직 및 서비스직	86	28.0
	기타	144	46.9
지역	서울	223	72.4
	경기	85	27.6
소득	100만원 미만	29	9.4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113	36.7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	117	38.0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28	9.1
	400만 원 이상	21	6.8

* 무응답은 제외함

제2절 중년여성의 빈모실태

1. 중년여성의 빈모 실태

중년여성의 빈모실태를 분석한 결과, 먼저 외모가운데 헤어스타일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는 50%~60%를 차지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로 알 수 있는 것은 중년 여성들에게도 헤어스타일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용숙(2006)의 연구에서는 탈모관련 사항에서 탈모증이 발견된 시기로 30대 초반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 설문 조사에서도³⁴⁾ 빈모 및 탈모 시작 시기로는 30대부터 시작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7.1%로 과반 수 이상으로 높게 조사된바 현재 사회에서는 탈모 및 빈모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모 때문에 힘든 점으로는 자신감 상실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대인기피증이 26.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영(2009)의 중년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중년여성의 외모가 자신감 및 대인기피증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³⁵⁾

34) 김용숙(2006), 「탈모 남성의 스트레스와 영양소 섭취량 및 혈액성상 조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35) 이상영(2009), 「중년여성의 외모관심도 및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동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0-44

[표 4-2] 중년여성의 빈모실태

(N=309, 100%)

변 수	집 단	N	%
외모가운데 헤어스타일 비중	10%~20%	7	2.3
	30%~40%	59	19.2
	50%~60%	110	35.7
	70%~80%	93	30.2
	90% 이상	39	12.7
빈모시작시 기	20대	61	19.8
	30대	176	57.1
	40대	71	23.1
빈모로 힘든 점	자신감 상실	143	46.3
	취직의 어려움	59	19.1
	대인 기피증	82	26.5
	이성교제의 어려움	25	8.1

* 무응답은 제외함

2. 빈모의 원인에 대한 인식도

빈모의 원인으로는 중복응답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최연희(2000)는 스트레스가 업무에서 비롯된 것 보다는 인간적 갈등에서 스트레스가 더욱 과중하게 쌓인다고 하였으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머리가 빠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어 탈모를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고 하였다.³⁶⁾

빈모의 다음 원인으로는 출산으로 인해서가 30.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최연희(2000)는 출산 후의 영양 불균형이나 체력의

36) 최연희(2000), 『김천과학대학 논문집, Vol 26 No』, p.313

쇠약에 따라 일어나는 광범성 탈모증으로 체력이 회복되면 자연히 치유된다고 하였으나”³⁷⁾ 현대인의 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와 산후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히 치유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병적요인 및 약물복용, 유전, 헤어시술 및 헤어 제품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빈모의 원인

항목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N
유전	12	11.4%	21.1%
스트레스	36	34.3%	63.2%
병적요인 및 약물복용	16	15.2%	28.1%
출산 후	32	30.5%	56.1%
헤어시술 및 헤어 제품 사용	9	8.6%	15.8%
전체	105	100.0%	184.2%

3. 탈모 및 빈모 예방과 관리의 효과

탈모 및 빈모 예방과 관리에 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빈모관리로는 탈모전용헤어제품(샴푸 및 토닉)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탈모 및 빈모로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TV광고, 인터넷 쇼핑 등에서 두피 상태에 따라 탈모 및 빈모 제품 등을 예방 차원에서 쉽게 구입하거나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37) 최연희(2000), 전계논문집 p.313

다음은 미용실 및 병원두피관리가 30.2%로 높게 나타났으며 탈모 및 빈모 예방 및 관리의 효과로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가 없었다가 20.4%로 나타나 총 효과가 없었다고 한 경우가 66.4%로 과반수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빈모 및 탈모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효과는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빈모 예방 및 관리의 효과

구 분		N	%
빈모관리	탈모전문 관리실	7	2.3
	모발이식	59	19.2
	탈모전용헤어	110	35.7
	제품(샴푸 및 토닉)	93	30.2
	미용실 및 병원두피	39	12.7
	관리		
빈모 예방 및 관리의 효과	민간요법	142	46.0
	전혀 없었다.	63	20.4
	효과 없었다.	78	25.2
	그저 그랬다	26	8.4
	좋았다		
계		309	100.0
평균		1.96	

* 무응답은 제외함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빈모의 예방 및 관리 효과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으며, 학력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인 경우가 평균 5점 만점에 2.06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1.36으로 효과가 가장 낮다고 평가하였다($p<.05$)

[표 4-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빈모의 예방 및 관리 효과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F
연령	40대	255	1.98	1.044	-.720
	50대	53	1.85	.928	
결혼여부	미혼	35	2.06	1.136	1.637
	기혼	229	1.99	1.022	
	기타	44	1.70	.930	
학력	고졸이하	107	1.94	1.017	2.145*
	전문대졸	128	2.06	1.048	
	4년대졸	59	1.90	1.012	
	대학원 이상	14	1.36	.745	
직업	전문기술직	30	1.93	1.112	.136
	사무직	47	1.96	.999	
	판매직 및 서비스직	86	2.01	.988	
	기타	144	1.92	1.045	
지역	서울	223	1.95	1.016	-.321
	경기	85	1.99	1.052	
소득	100만원 미만	29	1.66	.974	1.600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113	2.09	1.057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	117	1.90	1.003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28	1.82	.983	
	400만 원 이상	21	2.19	1.030	

*P<.05

제3절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사용실태

1. 부분 가발 사용 의도 및 이유

부분 가발 사용 의도 및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4-6]과 같으며, 헤어스타일을 자유롭게 연출이 가능하다면 부분가발을 사용하겠다는

지를 분석한 결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45명 79.3%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빈모나 탈모로 신경이 쓰인다면 부분가발을 사용하겠다는지를 분석한 결과, 역시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47명인 79.9%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다.

선행연구 양숙희 외 5인(2004)에서도 헤어에 관련된 행동도 외모 관리 행동의 하나로 보았으며, 여성들은 주로 기분전환이 필요 할 때 헤어스타일을 바꾸었다고 하였다.³⁸⁾

그리고 빈모나 탈모로 인해 제한적인 헤어스타일을 하는 중년여성들의 부분가발을 사용하려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로는 자신감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40명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남의 시선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0명 26.0%로 높았으며, 20.8%가 스트레스 때문에, 주위에서 권해서가 24%순으로 조사되었다.

38) 양숙희외 5인,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형태와 관련요인 분석」, 『보건복지연구, 제6호』, pp, 193-215.

[표 4-6] 부분 가발 사용의도 및 이유

(N=309, 100%)

변 수	집 단	N	%
헤어스타일 연출가능시 사용여부	예 아니오.	245 64	79.3 20.7
빈모나 탈모로 신경 쓰인다면 사용여부	예 아니오.	247 62	79.9 20.1
부분 가발 사용하려는 의도	자신감을 위해 남의 시선 때문에 주위에서 권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140 80 24 64	45.5 26.0 7.8 20.8

* 무응답은 제외함

2. 가발 구입 처

가발 구입 시 믿음이 가는 곳으로는 196명인 64.1%가 가발업체에 더 믿음이 간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미용실에서 가발을 관리 한다면 미용실을 이용하겠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69명인 87.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 여성들이 헤어스타일을 위해서 미용실을 선호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발 가격에 대한 적정성에서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58명인 51.2%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23명인 39.8%가 보통이라고 조사되었고, 28명인 9.0%가 적당하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아직까지는 가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이 조절

되어야 가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4-7] 가발 구입 시 믿음이 가는 곳

(N=309, 100%)

변 수	집 단	N	%
가발 구입 시 믿음 가는 곳	가발업체	196	64.1
	미용실	30	9.8
	둘 다	43	14.1
	둘 다 믿음이 없다	37	12.1
미용실에서 가발 관리 한다면	예	269	87.3
	아니오.	39	12.7
미용실 이용의사 가발가격에 대한 적정성	적당하지 못함	158	51.2
	보통	123	39.8
	적당함	28	9.0
	평균	2.49	

* 무응답은 제외함

3. 부분 가발 사용 실태

부분 가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4-8]과 같으며, 부분가발이 필요한 상태인지에서는 필요한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가 193명인 62.5%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는 116명으로 37.5%로 나타나. 50%가 넘는 62.5%가 부분가발이 필요하지만 부분가발 사용여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137명인 43.7%, 172명인 56.3%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분가발이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부분 가발 사용 실태

(N=309, 100%)

변 수	집 단	N	%
부분가발이 필요한 상태	예	193	62.5
	아니오.	116	37.5
부분 가발 사용여부	예	137	43.7
	아니오.	172	56.3

* 무응답은 제외함

4. 부분 가발 사용동기

부분 가발 사용동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부분가발의 사용동기로는 사회적 인식이 47명인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짝은 대인관계가 34명인 25.0%로 높게 나타났으며 22.8%인 31명이 자신감 회복을 위해라고 답하였고 취업 혹은 면접, 약혼 및 결혼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적 부분이 사회적 인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분 가발 사용 전 염려가 되었던 부분에서는 부분가발의 착용감 및 스타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36명중 55명인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발의 착용에 있어서 두피에 닿는 부분이나 계절, 날씨 등에 따른 체온 변화 등으로 본인의 신체적 염려 또한 있다고 보여 진다.

가발 착용 후 주변의 반응으로는 60명인 43.8%가 자연스럽다고 대답하였으며, 58명인 42.3%가 그저 그렇다 19명인 13.9%가 조금 어

색하다 순으로 조사 되었다. 주변 반응으로 보아 중년여성의 탑 부분가발을 착용 하였을 때 이미지 효과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9] 부분 가발 사용동기

(N=137, 100%)

변 수	집 단	N	%
부분 가발 사용동기	취업 혹은 면접	13	9.6
	약혼, 결혼	11	8.1
	잡은 대인관계	34	25.0
	사회적 인식	47	34.6
	자신감 회복	31	22.8
부분 가발	남들의 시선	37	27.0
사용 전 걱정된	브랜드	31	22.6
부분	부분가발의 착용감 및 스타일	55	40.1
	기타	14	10.2
가발 착용 후	조금 어색하다	19	13.9
주변의 반응	그저 그렇다	58	42.3
	자연스럽다	60	43.8

* 무응답은 제외함

5. 부분 가발 사용하지 않은 이유

부분가발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표 4-10]과 같으며, 부자연스럽다가 64명인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4명인 19.9%가 아프거나 답답하다고 답하였고 27명인 15.8%가 가격, 26명인 15.2%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착용 후 쉽게 갈 수 있는 미용실이 없다는 대답이 20명인 11.7%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부분가발의 질적인 면과 스타일면에서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부분가발이 패션화로 발달이 되면 사용하겠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한 결과, 171명중 93명인 54.4%가 생각해보겠다고 답하였고, 48명인 28.1%, 사용 안하겠다고 30명인 17.5%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가발의 스타일화가 된다면 헤어스타일을 스타일링 함에 있어 부부가발의 거리감을 줄힐 수 있다고 사료 된다.

[표 4-10] 부분 가발 사용하지 않은 이유

(N=172, 100%)

변 수	집 단	N	%
부분 가발 사용하지 않은 이유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26	15.2
	부자연스럽다	64	37.4
	아프거나 답답함	34	19.9
	가격	27	15.8
	착용 후 쉽게 갈 수 있는 미용실이 없다	20	11.7
부분가발이	사용안하겠다	30	17.5
패션화로 발달이	생각해 보겠다	93	54.4
되면 사용의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48	28.1

*무응답은 제외함

제4절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사용 효과

1. 부분 가발 사용 후 만족도

부분 가발 사용 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9로 보통이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부분 가발 사용 후 만족도

구분		N	%
부분 가발 사용 후 만족도	불만족	19	13.9
	보통	46	33.6
	만족	72	52.6
	계	137	100.0
	평균	3.3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착용 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2]와 같으며,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50대가 3.58로 40대 3.37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5$)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기술직이 3.10으로 가장 낮게 조사 되었다.($p<.05$)

[표 4-12]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착용 후 만족도 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F
연령	40대	112	3.37	.723	2.131*
	50대	25	3.58	.714	
결혼여부	미혼	15	3.33	.724	.271
	기혼	97	3.37	.740	
	기타	25	3.48	.653	
학력	고졸이하	46	3.37	.741	.485
	전문대졸	59	3.46	.727	
	4년대졸	26	3.31	.618	
	대학원 이상	6	3.17	.983	
직업	전문기술직	10	3.10	.738	2.793*
	사무직	21	3.57	.676	
	판매직 및 서비스직	41	3.52	.591	
	기타	64	3.20	.843	
지역	서울	96	3.39	.731	.001
	경기	41	3.39	.703	
소득	100만 원 미만	9	3.56	.726	.683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49	3.33	.747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	53	3.36	.736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14	3.64	.497	
	400만 원 이상	12	3.33	.778	

*P<.05

2. 부분 가발 사용 후 심리적 안정감

부분 가발 사용 후 심리적 안정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4로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3]부분 가발 사용 후 심리적 안정감

(N=137, 100%)

구분		N	%
부분 가발 사용 후 만족도	불안정	11	8.0
	보통	41	29.9
	안정	85	62.0
	평균	3.54	

*무응답은 제외함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부분 가발 착용 후 심리적 안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4]와 같으며,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50대가 평균 3.74로 40대 평균 3.52보다 높게 조사 되었다.($p<.05$)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평균 3.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 기술직이 3.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표 4-1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착용 후 심리적 안정감 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F
연령	40대	112	3.52	.644	2.131*
	50대	25	3.74	.638	
결혼여부	미혼	15	3.60	.507	.078
	기혼	97	3.54	.662	
	기타	25	3.52	.653	
학력	고졸이하	46	3.57	.583	.278
	전문대졸	59	3.56	.650	
	4년대졸	26	3.50	.707	
	대학원 이상	6	3.33	.816	
직업	전문기술직	10	3.50	.707	2.561*
	사무직	21	3.76	.436	
	판매직 및 서비스직	41	3.44	.743	
	기타	64	3.55	.615	
지역	서울	96	3.56	.629	.387
	경기	41	3.49	.675	
소득	100만원 미만	9	3.78	.441	.423
	100만 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9	3.49	.649	
	200만 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3	3.57	.605	
	300만 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4	3.50	.760	
	400만 원 이상	12	3.50	.798	

*P<.05

3. 부분 가발 사용 후 도움정도

부분 가발 사용 후 도움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4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5]부분 가발 사용 후 도움정도

(N=137, 100%)

구분		N	%
부분 가발 사용 후 도움정도	보통	28	20.6
	도움 됨	75	55.1
	매우 도움 됨	33	24.3
	평균	4.04	

*무응답은 제외함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착용 후 도움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6]과 같으며, 학력과 소득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이 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년대 졸인 경우가 3.85로 가장 낮았으며, 소득에서는 4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p<.05$).

학력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년 여성들의 사용 후 도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에 맞고 스타일에 어울리는 가발의 착용과 함께 만족도 및 도움 정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16]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착용 후 도움정도 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F
연령	40대	112	4.04	.663	.887
	50대	25	4.00	.722	
결혼여부	미혼	15	4.00	.756	.084
	기혼	97	4.05	.639	
	기타	25	4.00	.764	
학력	고졸이하	46	3.96	.665	2.951*
	전문대졸	59	4.16	.670	
	4년대졸	26	3.85	.675	
	대학원 이상	6	4.33	.516	
직업	전문기술직	10	4.20	.632	.469
	사무직	21	3.90	.700	
	판매직 및 서비스직	41	4.05	.677	
	기타	64	4.05	.677	
지역	서울	96	4.04	.648	.017
	경기	41	4.03	.733	
소득	100만원 미만	9	3.78	.667	2.874*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49	3.94	.719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	53	4.12	.615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14	3.93	.730	
	400만 원 이상	12	4.42	.515	

*P<.05

4. 부분 가발 사용 후 불만족 이유 및 보완점

부분 가발 사용 후 불만족 이유 및 보완점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7]과 같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모발과의 모질 차이가 137명중 50명인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7명인 27.0%가 전체적인 헤어스타일, 다음은 모발과 연결되지 않은 커트가 23.4%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11명인 8.0%가 모발색깔의 차이들 들었고 나머지 7명인

5.1%가 관리의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부분 가발의 보완점으로는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137명중 37명인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용의 편리함과 가발을 손질 쉽게 할 수 있는 미용실이 필요하다는 각각 31인 22.6%로 높게 조사 되었고, 24명인 17.5%로 모질 및 품질을 뽑았으며 가발을 손질 쉽게 할 수 있는 미용실이 필요하다는 점이 14명인 10.2%로 나타났다.

[표 4-17] 부분 가발 사용 후 불만족 이유 및 보완점

(N=137, 100%)

구분		N	%
불만족 이유	모발색깔의 차이	11	8.0
	모발과 연결되지 않은 커트	32	23.4
	모발과의 모질 차이	50	36.5
	전체적 헤어스타일	37	27.0
	관리의 어려움	7	5.1
보완점	사용의 편리함	31	22.6
	다양한 스타일 연출	37	27.0
	다양한 착용방법	24	17.5
	모질 및 품질	31	22.6
	가발을 손질 쉽게 할 수 있는	14	10.2
	미용실 필요		

* 무응답은 제외함

5. 부분 가발 구입 시 고려사항

부분 가발 구입 시 고려사항으로는 [표 4-18]에서와 같이, 62명인 45.3%인 스타일이라고 가장 높게 답하였는데 이는 젊은 세대들의

가발 사용과는 달리 중년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빈모와 탈모로 인한 탑 부분의 보완적인 스타일 정도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가발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스타일적인 면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로 보아 부분가발의 다양화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질적인 부분을 52명인 38.0%로 나타났고, 13명인 9.5%가 가격을 뽑았고 브랜드는 10명인 7.3%로 조사되었다.

부분 가발 착용 시 미용실 이용 불편한 점으로는 탈모나 빈모 등으로 인한 모발의 부족으로 남들의 시선 및 제한적 스타일이 각각 137명중 47명인 34.3%로 가장 높았으며 부분가발의 시술 비라고 답한 사람이 137명중 35명인 25.5%, AS문제로 8명인 5.8%로 나타났다.

부분 가발 착용으로 미용실의 이용이 불편한 점은 남들의 시선과 제한적 스타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발의 단면적인 부분만이 인식되어져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 주위 사람도 착용자도 서로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발을 착용할 수 있는 가발의 패션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표 4-18] 부분 가발 구입 시 고려사항

(N=137, 100%)

구분		N	%
가발 구입 시 고려사항	브랜드	10	7.3
	가격	13	9.5
	질	52	38.0
	스타일	62	45.3
부분 가발	남들의 시선	47	34.3
착용 후	부분 가발의 시술비	35	25.5
미용실 이용	제한적인 스타일	47	34.3
시 불편한 점	AS문제	8	5.8

* 무응답은 제외함

제5절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에 대한 선호도

중년여성의 부분가발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9]와 같으며, 전체적인 평균은 5점 만점에 3.9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선호하는 이미지에서는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가발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이미지를 변화할 수 있는 가발이 평균 4.08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원하는 볼륨감을 살릴 수 있는 가발에 대한 선호도가 4.01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4-19] 중년여성의 부분가발에 대한 선호도

이미지	N	M	S.D
젊어 보임	309	3.97	.709
이미지 변화	309	4.08	.721
자신감 회복	309	3.79	.767
생활의 활력	309	3.95	.741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연출	309	4.15	.694
원하는 볼륨감	309	4.01	.693
헤어스타일 다양화	309	3.93	.834
일상생활의 편리함	309	3.99	.781
자유로운 손질 가능	309	4.03	.785
전체	309	3.99	.75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0]과 같다.

결혼여부와 직업과 지역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3.75로 기혼과 기타 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p < .05$). 직업에서는 기타가 평균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기술직이 가장 낮게 조사 되었다($p < .05$). 지역에서는 서울보다는 경기에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표 4-2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선호도 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F
연령	40대	255	3.49	.243	
	50대	53	3.59	.252	
결혼여부	미혼	35	3.75	.239	2.147*
	기혼	229	3.58	.247	
	기타	44	3.59	.285	
학력	고졸이하	107	3.61	.245	.647
	전문대졸	128	3.58	.255	
	4년대졸	59	3.57	.276	
	대학원 이상	14	3.64	.160	
직업	전문기술직	30	3.36	.271	3.173*
	사무직	47	3.58	.219	
	판매직 및 서비스직	86	3.55	.290	
	기타	144	3.63	.226	
지역	서울	223	3.58	.265	2.174*
	경기	85	3.72	.211	
소득	100만원 미만	29	3.60	.249	.43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3	3.57	.25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7	3.61	.25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8	3.57	.226	
	400만원 이상	21	3.60	.274	

*P<.05

부분 가발 사용실태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1]에서와 같이, 부분가발이 필요한 상태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가발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경우보다 선호도가 높게 조사 되었다(p<.05).

[표 4-21] 부분 가발 사용 실태에 따른 선호도 차이

변 수	집 단	N	M	S.D	T
부분가발 이 필요한 상태	예	193	3.71	.239	2.480*
	아니오.	116	3.57	.260	
부분 가발 사용여부	예	137	3.58	.232	-1.233
	아니오.	172	3.61	.281	

*P<.05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

가발은 미용인에게 있어서 사람의 얼굴에 완전성을 준다는 의미와 비자지즘에서 주장하는 얼굴형의 보dana은 형태를 위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리첸월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상학에서의 Hair Dressing의 대중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는 헤어스타일이 손님의 특정한 얼굴 형태에 어울려져야 된다고 하는 비자지즘 배경에서 최근의 미용패션 경향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외모를 중시하는 최근의 풍조와 더불어 산업사회의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공해문제, 각종 스트레스, 영양섭취의 불균형 등에 의해 남녀를 불문하고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치료약품이나 샴푸, 비누 그리고 각종 모발관리 프로그램, 심는 가발 등에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 하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년 여성의 신체적 변화 중에는 탈모 및 빈모가 아니라도 호르몬문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빈모 및 탈모가 일어난다. 이는 더 나아가 두피 건강까지도 야기하게 되는데 이는 중년 여성의 고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가발의 실태와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중

년여성들이 가발을 응용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데 도움을 주며 탈모에 대한 상식과 자신의 얼굴형에 따라 자신 있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우아함과 여성적인 이미지, 보다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스타일에 도전할 수 있고, 또한 개인의 성격이나 패션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가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발이 탈모고객뿐 아니라 멋을 창조하는 패션의 소품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에서는 40대가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0대는 17.2%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14.3%, 미혼이 11.4%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기타가 46.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판매직 및 서비스직이 28.0%로 나타났다. 지역은 서울이 72.4%, 경기도가 27.6%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의 빈모실태를 분석한 결과, 먼저 외모가운데 헤어스타일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는 50%~60%를 차지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모시작 시기로는 30대부터 시작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7.1%로 과반 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빈모 때문에 힘든 점으로는 자신감 상실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대인기피증이 26.5%로 높게 나타났다. 빈모의 원인으로는 중복응답 분석한 결과, 스트레

스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출산으로 인해서가 30.5%로 높게 나타났다. 빈모관리로는 탈모전용헤어제품(샴푸 및 토닉)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미용실 및 병원두피관리가 30.2%로 높게 나타났다. 빈모 예방 및 관리의 효과로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가 없었다가 20.4%로 나타나 총 효과가 없었다고 한 경우가 66.4%로 과반 수 이상으로 높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빈모의 예방 및 관리 효과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인 경우가 평균 5점 만점에 2.06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1.36으로 효과가 가장 낮다고 평가하였다($p<.05$)

셋째, 중년여성의 가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먼저 헤어스타일 연출 가능 시 부분가발을 사용하겠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79.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빈모나 탈모로 신경이 쓰인다면 부분가발을 사용하겠는지를 분석한 결과, 역시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79.9%로 높게 나타났다. 부분가발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자신감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남의 시선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6.0%로 높게 나타났다. 가발 구입 시 믿음이 가는 곳으로는 가발업체가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용실에서 가발 관리 한다면 미용실 이용의사로는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87.3%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발 가격에 대한 적정성에서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분 가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분가발이 필요한 상태인지에서는 필요한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가 62.5%,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가 37.5%로 나타났다. 부분 가발 사용여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43.7%,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56.3%로 나타났다. 부분가발의 사용동기로는 사회적 인식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짝은 대인관계가 25.0%로 높게 나타났다. 부분 가발 사용 전 염려가 되었던 부분에서는 부분가발의 착용감 및 스타일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발 착용 후 주변의 반응으로는 자연스럽다와 그저 그렇다가 각각 43.8%, 42.3%로 나타났다.

부분 가발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부자연스럽다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프거나 답답함이 19.9%로 나타났다. 부분 가발이 패션화로 발달이 되면 사용하겠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한 결과, 생각해보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가 82.5%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부분 가발 사용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저,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9로 보통이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착용 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50대가 3.58로 40대 3.37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5$)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기술직이 3.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부분 가발 사용 후 심리적 안정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4로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부분 가발 착용 후 심리적 안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50대가 평균 3.74로 40대 평균 3.52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평균 3.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기술직이 3.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부분 가발 사용 후 도움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4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착용 후 도움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소득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이 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년대 졸인 경우가 3.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4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다섯째, 부분 가발 사용 후 불만족 이유 및 보완점을 분석한 결과, 불만족 이유로는 모발과의 모질 차이가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모발과 연결되지 않은 커트가 23.4%로 높게 나타났다. 부분가발의 보완점으로는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용의 편리함과 가발을 손질 쉽게 할 수 있는 미용실이 필요하다는 각각 22.6%로 높게 나타났다. 부분 가발 구입 시 고려사항으로는 스타일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질이 38.0%로 높게 나타났다. 부분 가발 착용 시 미용실 이용 불편한 점으로는 남들의 시선과 제한적인 스타일이 각각 34.3%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중년여성의 부분가발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평균은 5점 만점에 3.9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선호하는 이미지에서는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가발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이미지를 변화할 수 있는 가발이 평균 4.08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원하는 볼륨감을 살릴 수 있는 가발에 대한 선호도가 4.01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분 가발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여부와 직업과 지역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3.75로 기혼과 기타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p<.05$). 직업에서는 기타가 평균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기술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지역에서는 서울보다는 경기에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05$)

부분 가발 사용실태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분가발이 필요한 상태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가발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경우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p<.05$)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모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과 젊은 층의 탈모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가발은 더 많은 스타일이 연구되어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 디자이너들이 많았으면 한다. 패션 뿐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가발이 많이 만들어져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더욱더 절감할 수 있었다.

둘째, 각종 탈모 질환에 대한 예방과 원인, 관리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본 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대 중년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외모에 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헤어스타일에 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인 부분도 있으며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모발이 줄거나 빠지는 현상으로 인해 제한적인 헤어스타일

을 하여야만 하며 특히 한국중년 여성의 헤어스타일 특징인 얼굴형과 어울리는 스타일도 중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년여성은 탑 부분의 빈모와 탈모로 인해 전체 가발보다는 부분가발을 이용한다.

하지만 가발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년 여성은 모발의 탈모나 빈모로 인하여 헤어스타일에 제한을 받으면서도 쉽게 가발이라는 편견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발이 우리 인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헤어와 자연스럽지 못하고 분리된 듯한 느낌으로 인해 사용을 꺼리는 사람도 있으며 가발의 관리 및 제한적 스타일 때문에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발산업과 모발이식술이 빈모 및 탈모인들의 대체 방안으로서 활성화 되어야 하며, 장기간의 관리를 요구하는 탈모관련시장에 대한 헤어스타일리스트는 가발로서 고객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이를 위해 제조하고 조립함으로서 고객 최대의 미용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발을 선택하고 모양을 내며 또한 관리로서 세탁·손질하는 방법까지 미용 산업에 있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관심분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가발전문점은 각각의 브랜드를 내세워 많은 선전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들 업소들만의 철저한기술상의 노하우로 인하여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자료와 기술을 수집하는 데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가발에 관한 기술상의 전문서적의 희소성으로 인해 학술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각 분야별 가발 관련자료 들을 학술적으로 기술함으로서

가발분야가 자연적으로 독립된 가발산업으로 전문화되어짐에 있어 실용학문으로서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년여성으로 국한하였으며 조사지역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제한하여 조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들의 가발 착용 실태와 선호도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인 변수들과의 인과관계를 통한 가발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져서 가발관련 연구들이 학문적으로 체계화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국내 논문>

- 고주영(2009), 「假髮디자인의 現代的 適用을 위한 헤어 일러스트레이션
表現에 關한 研究」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형심(1998), 「여성의 모발미용에 대한 의식형태 조사연구」, 경산
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오혁(2009),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모발 길이의 수치화가
커트교육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공삼(2007), 「보브 헤어스타일의 형태 분석과 유형에 관한 연구」,
김금순(2006), 「얼굴 형태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
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향(2004), 「미용학적 접근의 탈모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5
권 제1호 p.110
- 김나영(2006), 「일하는 중년여성의 몸 변형 경험에 대한 연구」, 숙
명여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명주(1998),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 조형성에 관한 연구」, 조선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인(1999),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
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5권, 제1호
- 김봉인(1999),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5권, 제1호』
- 김숙자(2009), 「서양의 헤어스타일 변천사 분석 및 작품 재연」 서경
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김용숙(2006), 「탈모 남성의 스트레스와 영양소 섭취량 및 혈액성상 조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영(2006),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커트 스타일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란(2006),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특성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금자(2006), 「일부지역 중, 장년층 여성들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문희정(2010), 「중년여성의 외모지향성 및 외모평가와 피부건강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예(2005), 「고려와 조선의 분장과 두발 장식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2006), 「남성의 패션, 헤어스타일, 피부, 신체이미지에 관한 유형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이숙(2008), 「중년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피부건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중심으로」, 숙명여대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복(2009), 「복합운동이 복부비만 중년여성의 체력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영(2006),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유리(2004),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Hair Fashion의 경향-프랑스

-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숙희외 5인,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형태와 관련요인 분석」, 『보건복지연구 제6호』, pp, 193-215.
- 연경희(2005), 「중년여성의 화장 후 외모 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숙(2005), 「현대여성의 토탈 코디네이션 연구」,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경(1999), 「현대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선(2005), 「두피클리닉의 탈모관리 실태 및 탈모고객 만족도 조사 : 서울지역 8개 두피클리닉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영(2009), 「중년여성의 외모관심도 및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동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2006), 「중년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연구」, 대전대 보건의스포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희(2002), 「脫毛顧客에 對한 假髮應用 및 헤어코디네이션에 關한 研究」, 大邱가톨릭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장수만(2006), 「미용학적 접근의 탈모 및 가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옥주(2002), 「헤어로 인한 이미지연출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원혜(2008), 「중년여성의 화장품 구매 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2004), 「조선후기 여성의 머리 형태 재현에 의한 현대 업스타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최만중(2004), 「脫毛에 따른 假髮着用에 관한 技術的 考察」,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연희(2000), 『김천과학대학 논문집, Vol 26 No』

최혜정(2005),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성기(2007), 「베이직 헤어 커트의 응용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한미란(2006), 「시대적 배경에 따른 가발의 변천과 현대의 사용되는 특징 연구」, 남부대학교 산업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성립(2007), 「주름개선 기능성 한방 화장품의 선호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내 서적>

김광옥외 4명(2005), 『두피,모발관리를 위한 트리콜로지스트 입문서』, 청람 출판사

김수정(2005), 『한국 미용 100년』 동서 문류

김춘득(2002), 『동서양 미용 문화사』 문화사

류은주(2003), 『모발미학사』 이화

손미경(2004), 『한국여인의 髮 자취』, 미디어뷰

손수철, 『머리카락』, 한국모발연구회.

임숙자외(2002), 『현대의상 사회심리학』, 수학사.

장수만(2007), 『가발관리학』, 현문사

전선정의 3명(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정현진외(2004), 『미용문화사』, 광문각
정홍숙(2001), 『서양복식사』, 교문사

<외국 문헌>

Borland(1978), *Research on Middle Age :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18(4),
Havighurst(1953),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Longmans, Green.
Jung(1955),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Marcia J · Marcia(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 : John Wiley.
Papalia, D. E., & Olds, S.W. (1981) *Human Development*. USA: McGraw-Hill.

<인터넷자료 기타자료>

http://gabalnara.com/board/index.php?db=notice&no=83354&mari_mode=view@view&cate=&page=1&listURL=http%3A%2F%2Fgabalnara.com%2Fboard%2F%3Fdb%3Dnotice&search=&search_str=&temp
=
<http://www.himo.co.kr/lady/about/introduce.asp?OVRAW=%ED%95%98%EC%9D%B4%EB%AA%A8&OVKEY=%ED%95%98%EC%9D>

%B4%EB%AA%A8&OVMTC=standard&OVADID=12665868542&O
VKWID=163092149042&OVCAMPGID=812974042&OVADGRPID=74
31287930

<https://www.milan.co.kr/index.html>

일본 여성가발 카다로그 : FONTAINE



부록 : 설문지

<중년여성의 부분 가발 사용실태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No.			
-----	--	--	--

안녕 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헤어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입니다. **본 설문**의 목적은, **귀하께서 탈모 후 가발착용의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구자 외에 타인에게 공개 되지
않으며, 오직 통계분석을 통해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과 더불어
미용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지도교수 : 권 오 혁

연 구 자 : 서 미 영

(can0427@hanmail.net)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해 주세요.

1.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2.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4년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문기술직 ② 행정 관리직 ③ 사무직 ④ 판매직 및 서비스직
⑤ 기타

5. 귀하의 근무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서울 ② 경기

6. 귀하의 월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 원 이상-200만원미만

③ 200만 원 이상-300만원미만 ④ 300만 원 이상-400만원미만

⑤ 4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 원 이상

II. 다음은 빈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해 주세요.

☞ 빈모란 탈모와 다른 유형으로 모발의 두께가 얇아지고 모공이 줄어들어 모발이 약해져 힘이 없는 모발을 말합니다.

1. 귀하의 빈모가 시작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2. 귀하의 빈모의 원인으로 생각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

- ① 유전 ② 스트레스 ③ 병적요인 및 약물복용 ④ 출산 후
⑤ 헤어시술 및 헤어 제품 사용(예: 염색, 펌, 샴푸, 왁스 등)
⑥ 기타

3. 귀하는 자신의 외모 가운데 헤어스타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20% ② 30%-40% ③ 50%-60% ④ 70%-80%
⑤ 90%이상

4. 귀하는 머리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 ① 자신감 상실 ② 취직의 어려움 ③ 대인 기피증
④ 이성교제의 어려움

5. 귀하는 위 방법들이 빈모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데 효과적 이었습니까?

- ① 전혀 없었다. ② 효과 없었다. ③ 그저 그랬다 ④ 좋았다
⑤ 아주 좋았다

6. 귀하는 부분 가발을 사용 했을 때 풍성해 보이거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연출이 가능하다면, 부분 가발을 사용 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7. 귀하는 본인이 빈모나 탈모로 인해 헤어스타일에 신경이 쓰인다면 부분가발을 착용 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8. 귀하는 만약 부분가발을 착용한다면 어떤 의도로 착용을 하시겠습니까?

- ① 자신감을 위해 ② 남이 시선 때문에 ③ 주위에서 권해서
④ 스트레스 때문에

9. 귀하는 만약 가발 구입 시 가발업체(TV광고, 홈 쇼핑 등)미용실 두 곳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믿음을 갖으십니까?

- ① 가발업체 ② 미용실 ③ 둘 다 ④ 둘 다 믿음이 없다

10. 귀하는 부분가발을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듯이 관리한다면 미용실을 현재보다 자주 이용 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2. 귀하는 현재 부분가발이 필요한 상태이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Ⅲ. 다음은 부분가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해 주세요.

1. 귀하는 부분가발을 사용 하시고 계십니까?

- ① 예(1-1부터 1-12번까지) ② 아니요(아래 박스 안 1-13번으로)

1-1. 부분가발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혹은 면접 ② 약혼, 결혼 ③ 잦은 대인관계 ④ 사회적 인식
- ⑤ 자신감 회복 ⑥ 기타

1-2. 부분가발을 사용하기 전에 제일 걱정되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남들의 시선 ② 브랜드(가격과 품질) ③ 부분가발의 착용감 및 스타일
- ④ 기타

1-3. 현재 부분가발의 착용한 후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4. 귀하는 부분가발을 착용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불안정 ② 불안정 ③ 그저 그렇다 ④ 안정 ⑤ 매우 안정

1-5. 귀하는 부분 가발 사용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② 도움 안 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된다.
- ⑤ 매우 도움이 된다.

1-6. 귀하는 만약 부분가발을 구입 시 가발업체(TV광고, 홈쇼핑등)와 미용실 두 곳 중에서 어느 곳에 더 믿음을 갖으십니까?

- ① 가발업체 ② 미용실 ③ 가발업체, 미용실
- ④ 가발업체, 미용실모두 믿음이 없다

1-7. 귀하는 가발 구입 시 무엇을 제일 먼저 고려하십니까?

- ① 브랜드 ② 가격 ③ 질 ④ 스타일

1-8. 부분 가발 착용 시 불만족 이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모발색깔의 차이 ② 모발과 연결되지 않은 커트 ③ 모발과의 모질 차이
④ 전체적 헤어스타일 ⑤ 관리의 어려움

1-9. 부분 가발 사용 후 주변의 반응은?

- ① 매우 어색하다 ② 조금 어색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자연스럽다
⑤ 아주 자연스럽다

1-10. 부분 가발 착용이 불만족인 이유는?

- ① 모발 색깔의 차이 ② 머리와 연결되지 않은 커트 ③ 머리와 모질 차이
④ 전체적 머리 스타일

1-11. 부분 가발 사용 시 보완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 ① 사용의 편리함 ② 다양한 스타일 연출 ③ 다양한 착용방법
④ 모질 및 품질 ⑤ 가발을 손질 쉽게 할 수 있는 미용실 필요

1-12. 귀하는 부분 가발 착용 시 미용실을 가시기가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남들의 시선 ② 부분가발의 시술비용 ③ 제한적인 스타일
- ④ AS문제

1-13. 귀하가 부분 가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 ①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② 부자연스럽다 ③ 아프거나 답답함
- ④ 가격 ⑤ 착용 후 쉽게 갈 수 있는 미용실이 없다

1-14. 귀하는 부분가발이 패션화로 발달이 된다면 사용 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생각 안 하겠다 ② 생각 안 하겠다 ③ 생각해 보겠다
- ④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IV. 다음은 부분 가발 미사용자, 사용자 모두 체크해주세요.

귀하께서 만약 **부분 가발 착용 후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해 주세요.

1. 귀하는 부분 가발 착용 시 젊어 보인다면 착용 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하고 싶지 않다 ② 하고 싶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하고 싶다 ⑤ 매우 하고 싶다

2. 귀하는 부분 가발 착용 시 이미지의 변화를 갖는다면 착용 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하고 싶지 않다 ② 하고 싶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하고 싶다 ⑤ 매우 하고 싶다

3. 귀하는 부분 가발 착용 시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착용 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하고 싶지 않다 ② 하고 싶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하고 싶다 ⑤ 매우 하고 싶다

4. 귀하는 부분 가발 착용 시 생활에 활력을 얻는다면 착용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하고 싶지 않다 ② 하고 싶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하고 싶다 ⑤ 매우 하고 싶다

5. 귀하는 부분 가발 착용 후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수 있다면 착용 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하고 싶지 않다 ② 하고 싶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하고 싶다 ⑤ 매우 하고 싶다

6. 귀하는 부분 가발 착용 시 원하는 볼륨감을 얻는다면 착용 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하고 싶지 않다 ② 하고 싶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하고 싶다 ⑤ 매우 하고 싶다

7. 귀하는 부분 가발 착용 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면 착용 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하고 싶지 않다 ② 하고 싶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하고 싶다 ⑤ 매우 하고 싶다

8. 귀하는 부분 가발 착용 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다면 착용 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하고 싶지 않다 ② 하고 싶지 않다 ③ 그 저 그렇다
④ 하고 싶다 ⑤ 매우 하고 싶다

9. 귀하는 부분 가발 착용 시 자유롭게 손질이 가능하다면 착용 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하고 싶지 않다 ② 하고 싶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하고 싶다 ⑤ 매우 하고 싶다

10. 귀하는 부분 가발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1. 귀하는 부분가발에 대한 위의 질문들에 모두 만족한다면 착용 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2.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부분가발의 개선점이나 이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여 주세요.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A Study on Middle-Aged Women's Uses and Preferences of the Partial W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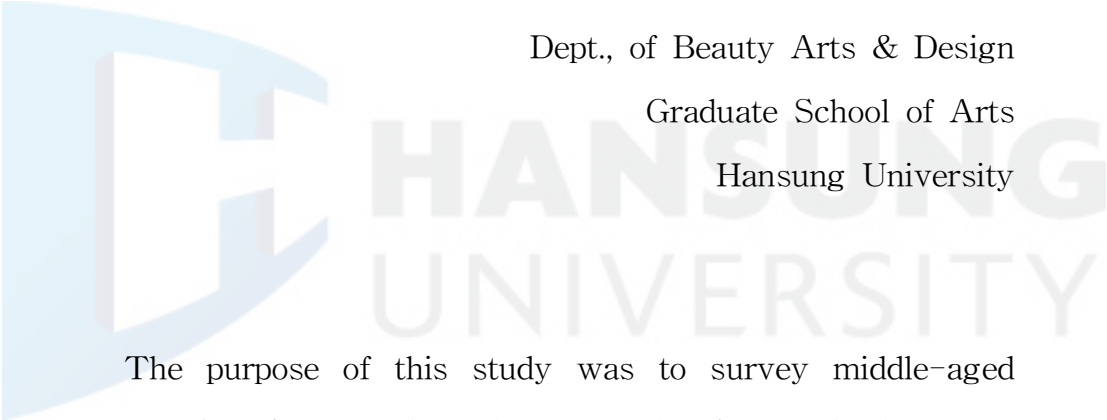
Seo, Mi-Young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s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a stylized blue and white geometric design. A large, light blue watermark of the university's name, 'HANSUNG UNIVERSITY', is overlaid diagonally across the center of the p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middle-aged women's views and preferences of wigs and thereupon, identify the problems of using the wigs and their solutions, and thereby, examine some harmonious marketing for beauty and wig businesses targeting the middle-aged women not satisfied with their hair styles due to the thin head of hair and then, suggest the ways to fashion the partial wigs for flexible hair styling.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middle-aged women living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middle-aged women's uses of wigs, it was found that 43.7% of the sample were using the partial wigs, while 56.3% of them were not using them. 34.6% of the former group were using the partial wigs for some social images, while 37.4% of the latter group were not using the partial wigs in fear of some unnatural look.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partial wigs, most of their users were satisfied more or less with them, while their level of satisfaction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age and jobs. The effect of the partial wigs perceived scored higher or 4.04, while the perceived effect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academic background and income levels.

Third, 36.5% of the partial wig users were dissatisfied with the partial wigs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quality between wigs and natural hairs, while 27.0% of them perceived that partial wigs should be styled more diversely.

Fourth, middle-aged women's preferences of the partial wigs scored 3.99 on average, higher than the normal level, and their preferences of the natural hair-style wig scored

highest or 4.15. Such preference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marital status, jobs and region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ut forward;

First, as the number of the middle-aged women who worry about hair loss and the number of the young women with their hair losing increas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into more diverse wig styles, while training the professional hair designers more. It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that excellent wigs should be designed in both terms of fashion and function.

Second, although diverse researches into prevention, cause and management of various hair loss diseases have been conduct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itherto researches have been not much effective. Henc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wig industry and the hair implant for baldness, considering their highly efficienc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addition, hair stylists are obliged to customize and assemble the wigs and thereby, increase the beauty effects of the wigs, considering that their clients' hair loss should be managed over long time.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analyze the wig data in more

details and professional manner and thereby, establish the
wig research as an academic discipline.

